

##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유림 보상대책 이제는 서둘러 검토해야 할 때

최 동 균 / 본회 전무이사

사유림이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각종 시업(施業)을 제한 받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서 문제가 되어왔고, 이들 시정조치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수많은 건의를 하여왔지만 아무 대책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어려운 시절에 국토녹화와 산림자원화라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나무를 심고 산림을 가꾸어 왔다. 이제 녹화가 되었고 나무가 자라 경치가 좋아지니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치만 좋은 곳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일체의 산림시업(山林施業)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산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힘들여 가꾸어 놓은 보람을 앗아갔다. 심지어는 내가 내 산에 들어가려 해도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모순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 입장료는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산에 들어갈 때 입장료 지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상에 어느 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필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 입장료 수입을 꼭 개인적으로 반환 받고 싶은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소한 그 수입의 몇 %까지만이라도 산림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 소관 회계로 귀속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수입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렇게 되어야 이치와 순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 과거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온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은 산림쪽이 전체 438천ha 중에서 사유림이 209천ha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면 사유림이 국립공원(산림)에 편입된 면적이 140천ha, 도립공원이 55천ha, 군립공원이 14천ha로 되었다. 여기에서 국공유림을 제외한 사유림 209천ha에 대하여는 당연히 응분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다는 회신만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명천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제까지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는 세상도 많이 바뀌고 산주도 참을 만큼 많이 참아왔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 문제만을 우선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보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유림 문제는 항상 뒷전에 밀려 검토 그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답답하고 임업은 항상 소외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일부 해제 내지 완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국립공원문제도 그린벨트에 이어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 몇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공원은 국유림에서 확충하고 사유림은 최소 불가피한곳 만을 제외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는 종전의 경치 좋은 곳 위주를 탈피하고 생태계나 유전자원보전 등 시각과 인식을 달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상 현금 보상이 어려움으로 국가(산림청)에서는 국유림 자투리땅을 매각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산주 희망에 따라 양쪽 감정 평가에 따라 교환에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한다.

또 사유림은 국가에서 매입,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에 그 산주에게는 자투리땅 매각에 수의계약제도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법률상, 규정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관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립공원의 소관부처가 산림청이 아니고 환경부라는데 있다. 산림청은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유림을 확충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산림청의 매입대상 임지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지에 한하여 매입하는 까닭에 환경부 소관이 될 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지를 매입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산림청과 환경부의 소관이 서로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임으로 만약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산림청이라면 이런 문제는 해법이 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산주 입장에서는 여하튼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산림청 소관으로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이 땅임자는 산림청인데 관리는 환경부가 맡아 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모순과 특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유림 산주 입장에서는 그 해법 찾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